



KYUNG HEE UNIVERSITY

2014 경희대학교 송년회

# Magnolia 2014

목련회의 · 목련예술제

2014년 12월 19일(금) 17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 개관

개교 65주년, 설립자 미래메시지 50주년이 저물어갑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경희 구성원은 대학다운 미래대학, 세계적 명문대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더 소통하고 공감하고 화합했습니다. ‘학술과 평화’의 의미를 새로이 하고, 학술과 실천을 결합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전진했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희의 체질을 재점검하고 대학의 건강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문화를 활성화했습니다. 2014년은 성금 캠페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미래위원회의 출범,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국내외 대학사회로 확산시키게 될 경희미래리포트 사업 추진, 최적·최고의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게 될 Space 21 착공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희 학술과 실천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5대 연계협력클러스터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융복합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연계협력클러스터는 전공, 학과, 학부, 대학원, 대학, 기업 등의 경계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교육·연구·국제화·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희의 연계협력클러스터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성취에 이어 경희의 대내외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올 한 해 경희가 이룬 성과를 Magnolia 2014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1부 목련회의에서는 Review 2014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경희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을 기리는 목련상 시상, 연계협력클러스터의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회, 총장님 인사말, 최신원 SKC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구성원과 지역주민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2부 목련예술제는 개교 65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지휘에서부터 오케스트라, 합창에 이르기까지 경희대 음대의 기량이 결집된 최고 수준의 연주를 선보입니다. ‘경희, 아름다운 세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목련예술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송구영신 축제가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 목련회의

17:00~18:30

Review 2014 영상

목련상 시상

총장 인사말

경희희망 2015

최신원 SKC(주) 대표이사 회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 목련예술제

19:00~20:00

개교 65주년 기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 합창단 음악회

**J. Strauss II** "Die Fledermaus" Overture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P. I.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for Cello and Orchestra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L. v. Beethoven** Symphony No.9 D Minor Op.125 "Choral" 4<sup>th</sup> Mov.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D단조 Op.125 제4악장

지휘	강석희	바이올린	양고운	송주현	비올라	윤진원
첼로	송영훈	더블베이스	신인선		오보에	이윤정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하석배
바리톤	강형규	합창 지휘	신승용			

음악대학 교수진 및 재학생 오케스트라 100여 명 · 합창단 200여 명



MAGNOLIA 2014

## 초대

2014년이 저물어갑니다. 경희는 올해 개교 65주년, 설립자 미래메시지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Magnolia 2014’(목련회의·목련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목련회의는 지난해 경희의 성취를 돌아보고, 새해 새 희망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목련예술제는 경희인과 일반 시민을 위한 예술 축전입니다. 경희의 역사와 미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뜻깊은 송구영신의 자리 ‘경희의 문화세계’에 초대합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 Review 2014 영상

경희는 개교 60주년인 2009년부터 매년 목련회의를 통해 한 해의 성취와 의미를 돌아보는 Review 영상을 공유해왔습니다.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 등 대학 핵심가치는 물론 구성원의 대내외적 성과를 함께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4년 Review 영상에 담긴 메시지는 경희미래리포트의 슬로건이기도 한 '대학을 바꾸자, 세계를 움직이자'입니다. 2015년 새해, 경희는 연계협력클러스터와 융복합 학습기관의 본격 출범과 함께 새롭게 비상합니다.

### 1. 개교 65주년, 미래메시지 50년

개교 65주년, 미래메시지 50주년. 경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한 2014년 한 해였습니다. 구성원들이 재정과 행정, 건설 부문에서 그 어느 해보다 더 소통하고 공감하고 변화한 한 해였습니다.

### 2. 개교 65주년 기념행사

개교 65주년에 즈음해, 창학이념과 미래비전이 압축된 설립자의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의 복간본과 리라이팅본이 동시에 발간됐습니다. 또한 '웃는 사자상'을 신설,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재학생을 발굴했습니다.

### 3. 대학의 핵심가치 강화

2014년에도 경희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학교 위상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학과 위상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희는 대학 위상을 대학의 지속 발전과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 4. 대형국책사업 연속 선정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고, '대학특성화 사업'에서도 2개 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게 됐으며, 미국 근관치료학회 국제공동연구과제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 5.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역량

<언어연구>가 국제학술지로 인정받았고, 응용물리학, 물리학, 화학공학, 원자력공학, 정보전자신소재, 침구경력, 생체의공학, 전자·전파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 6. 미래위원회 출범, 미래리포트 준비

경희학원 차원에서 구성된 미래위원회가 출범, 1차 사업으로 성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메시지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경희미래리포트는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수렴해 지구사회가 요청하는 미래대학의 가치와 요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7. 암병원 신설, 공공기숙사 착공

'의과학 경희'가 신개념 암 치료기관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설립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의료원 전면 플라자 착공에 이어 공공기숙사가 들어서면서 오랜 숙원사업 Space 21이 서서히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8. 연계협력클러스터와 함께 미래로 도약

2015년 새해 경희의 역동적인 문화는 연계협력클러스터와 함께 열릴 것입니다. 관·산·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연계협력클러스터는 학문과 실천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 목련상

목련상은 구성원이 함께 써나가는 도전과 성취의 서사(敍事)입니다.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위에,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지구공동사회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본교 교수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연구, 실천' 세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매해 연말 수여됩니다.

제정 첫해인 2009년에는 교육 부문에서故 이성호 교수(경영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서 유명철 석좌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가 수상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구 부문에서 장진 석학 교수(이과대학)와 손영숙 교수(생명과학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서 김창환 명예교수(한의과대학), 2011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도정일 명예교수(휴머니티스칼리지), 실천 부문에서 조병춘 전 사무국장(기획위원회 사무국)과 최부영 농구감독(체육부), 2012년에는 연구 부문에서 이동훈 교수(대학원 우주탐사학과), 2013년에는 실천 부문에 김종섭 교수(문과대학)가 목련상을 수상했습니다.

### 선정과정

지난 10월 6일부터 부문별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교육 부문 2명, 연구 부문 4명, 실천 부문 3명, 특별상 1명 등 총 10명이 접수됐습니다. 부총장단, 경희 Fellow, 교무위원, 기 수상자가 후보자를 심사했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부문에 김백봉 명예교수(무용학부), 연구 부문에 김동현 교수(약학대학), 실천 부문에故 김종규 교수(지리학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 목련상 조형물

목련상 조형물은 우리 대학의 교화인 목련을 오른손에 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목련상의 목련은 활짝 핀 꽃이 아니고 곧 피어날 꽃봉오리입니다. 개화 직전의 목련과 인간의 손은 경희의 창학이념과 미래비전을 응축한 것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경희인을 중심으로 전개돼나갈 인류의 문화세계를 상징합니다.





## 목련상 수상자 교육 부문



**김백봉** 무용학부 명예교수

그간 6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해온 김백봉 명예교수는 한국 신무용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비유됩니다. 김백봉 교수는 경희대 무용학부를 한국 무용교육과 예술의 산실로 키워내는 동시에 한국 창작 춤의 요람기를 이끌어왔습니다.

1969년 개교 20주년 축하공연 <경희찬가>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의 학원제를 총지휘했고, 이는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의 개·폐막식 안무의 원동력이 되어 국내외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백봉 기본춤' 또는 '경희대 기본춤'이라 불리는 춤 원리는 한국 춤의 교과서로 전국의 예술 중·고교 및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춤 교육은 “무용을 할 때는 도를 닦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이외에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우리의 감성이 들어 있어야 한다, 무용은 인격을 드러내므로 무용가의 인격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철학과 정신이 그의 춤과 교육에 담겨 있습니다.

**약력** '김백봉 부채춤'(평안남도 무형문화재 3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서울시무용 단장, 예술원 예술총람 편집위원회 위원, 88서울올림픽 개막식 안무, 서울국제올림픽박람회 문화행사기획자문위원, 대한민국 은관 문화훈장, 대한민국 보관 문화훈장, 대통령 표창(88서울올림픽 폐회식 유공), 국무총리 표창(86아시아게임 폐회식 유공), 대한민국예술원상 공로상, 상공부장관 표창(엑스포 '70 공연예술활동 유공), 경희대학교 '문화상', 경희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유공교수 표창



## 목련상 수상자 연구 부문



### 김동현 약학대학 교수

김동현 교수의 대표적 연구 성과 중 하나는 '의약품(한약 포함)의 소화관미생물에 의한 약효발현 기전 연구'입니다. 1988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350여 편(분야별 상위 10% 논문 30편 이상 포함)의 SCI(E) 논문을 발표하며, 경희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학술 전문 서적은 물론 일반 교양도서의 기반이 되어 연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1999년 BK21핵심사업단을 시작으로, 2006년 2단계 BK21대형사업단, 2008년 WCU 사업단, 2010년 약물대사기반사업단, 2013년 BK21플러스 대형사업단의 총괄책임자로 연구사업단을 이끌어왔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다수의 연구소와 학·연 연구, 기업체와 산·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의약품 조성물 및 관련 기술 다수를 이전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약력**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및 대학원 나노의약생명과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 BK21플러스 대형사업단 단장, WCU 사업단 단장, 약물대사기반사업단 단장,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생약학회 학술위원장, 고려인삼학회 학술위원장/부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목련상 수상자 실천 부문



### 故 김종규 지리학과 교수

故 김종규 교수는 진정한 경희인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어 1989년 지리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40여 년을 경희와 함께하며 경희 역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2004년 창고에 방치돼 있던 귀중한 사진과 필름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중앙박물관으로 이관, 보존 처리와 함께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희 역사사진 전시회'를 개최해 경희 역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7년부터는 교사편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경희의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경희의 역사를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그의 의지는 경희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 일체를 수집, 관리하는 '경희기록관'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각종 문헌자료를 연구하고 전국 대학을 벤치마킹했으며 해외 선진 기록관을 답사했습니다. 이 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2010년 '경희기록관'이 설립되었고, 2013년에는 중앙박물관과 경희기록관 관장을 함께 맡아 경희 역사의 기초를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故 김종규 교수를 통해 빛을 보게 된 경희의 역사는 경희학원과 함께, 경희 구성원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약력** 독일 Kiel 대학교 지리학 박사,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취업정보실장, 학생생활연구소장, 사회교육원 원장,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이사장, 학생지원처장, 경희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경희학원 징계위원장, 중앙박물관장, 경희기록관장



## 경희희망 2015

### 연계협력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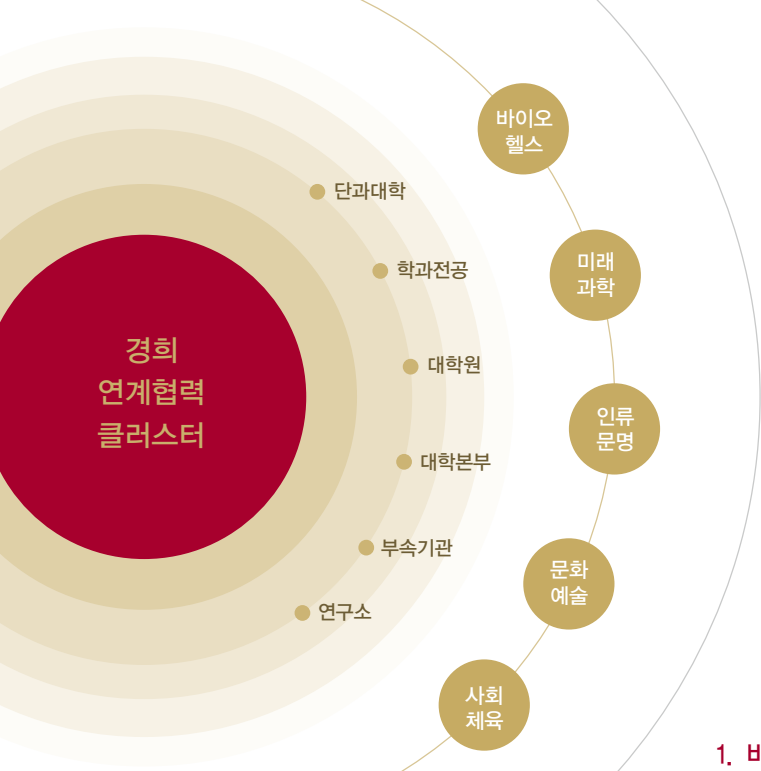
경희가 2015년 새해, 경희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연계협력클러스터와 함께 미래로, 세계로 비상합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우수 대학들의 혁신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가치, 기술과 의미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계협력 및 융복합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역량입니다.

연계협력클러스터는 학과, 단과대, 대학원, 연구소 등 경희의 기존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긴밀한 교류 협력을 이뤄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학내외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학문의 세분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연구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산·학 협력도 본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경희는 연계협력클러스터를 통해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대학의 도약 발전과 직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연계협력클러스터는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대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갈 수 있습니다. 연계협력은 개방성, 유연성, 지속성, 호혜성 등의 핵심가치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준비를 거쳐 먼저 출범하게 될 연계협력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헬스** 의학, 생명과학, 공학, 인문사회과학, 예술, 체육의 융복합으로 인류사회를 위한 신개념 의료 체계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유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 및 의생명 관련 분야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융합원을 세계적 학술기관으로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2. 미래과학**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융복합 신지식, 신기술을 창출하고, 융합형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자원, 식량, 물, 도시화, 고령화 등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 신산업의 창출을 지향합니다.

**3. 인류문명** 인류문명 클러스터는 보다 나은 지구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학술적, 실천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간, 학술, 지구, 우주의 미래를 탐구하는 융복합형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연관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합니다. 세계적 석학, 전문가, 예술가, 실천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됩니다.

연계협력클러스터와 융복합 학술기관은 학과, 단과대, 대학원, 연구소 등 대학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연계협력클러스터는 융복합 분야의 선도를 통해 경희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함께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희는 연계협력클러스터와 융복합 학술기관의 조기 정착을 통해 2019년 개교 70주년을 전후해 국내, 아시아 정상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 목련예술제

목련예술제는 경희 가족과 지역주민, 국내외 시민을 위한 축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음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과 시민이 어우러져 송구영신의 의미를 함께하는 이 음악회는 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J. Strauss II**

요한 슈트라우스

“Die Fledermaus” Overture

박쥐 서곡

**P. I. Tchaikovsky**

차이코프스키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for Cello and Orchestra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첼로 송영훈

**L. v. Beethoven**

베토벤

Symphony No.9 D Minor Op.125 “Choral” 4<sup>th</sup> Mov.

교향곡 제9번 “합창” D단조 Op.125 제4악장

### 출연진



지휘 강석희



바이올린 양고운



바이올린 송주현



비올라 윤진원



첼로 송영훈



더블베이스 신인선



오보에 이윤정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하석배



바리톤 강형규



합창 지휘 신승용

음악대학  
교수진 및 재학생  
오케스트라 100여 명 ·  
합창단 200여 명



### 요한 슈트라우스

## “Die Fledermaus” Overture

박쥐 서곡

왈츠의 왕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1825-1899)는 50대에 접어들어 오펜바흐의 권유를 받고 오페레타 장르에 도전해 성공한다. ‘박쥐(1873)’는 그의 대표적인 오페레타로 음악과 환락의 도시였던 19세기 비엔나가 무대. 귀족이자 돈 많은 한량인 주인공은 파티에 참석했다가 가면을 쓴 여인과 만나게 된다. 첫눈에 반한 주인공은 아끼는 시계를 선물하며 그녀를 유혹한다. 그런데 가면 속의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였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그는 곤경에 빠지는데, 이 모든 것이 친구의 복수극이었다는 코믹한 이야기이다.

서곡은 오페레타 ‘박쥐’의 모든 막(幕)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시킨 접속곡 형태이다. 오케스트라 투티의 힘찬 시작, 이어지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친숙한 멜로디들, 마지막으로 코다의 활기차고 들뜬 분위기는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한다.



# 목련예술제 곡목 해설

## 차이코프스키

###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for Cello and Orchestra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차이코프스키(1840-1893)가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교수인 첼리스트 피첸하겐을 위하여 작곡한 곡이다(1877). 모차르트를 매우 존경했던 차이코프스키는 이 곡에서 모차르트의 명쾌한 고전주의 스타일을 본받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편성 역시 다소 규모가 축소된 18세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첼로 송영훈

1. **테마** Moderato assai quasi Andante - Thema:

Moderato semplice

짧은 오케스트라 서주에 이어 첼로 솔로로 간결하고 우아한 로코코풍의 주제를 연주한다.

2. **제1변주** Tempo della Thema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간 부분에서 오케스트라가 주제를 연주한다. 매우 활기차면서도 기품이 있다.

3. **제2변주** Tempo della Thema

오케스트라와 첼로 솔로의 대화로 진행되며, 주제는 거의 두 배의 속도로 연주된다.

4. **제3변주** Andante sostenuto

주제는 C장조로 전조되며, 느린 속도로 연주한다.

5. **제4변주** Andante grazioso

다시 A장조로 돌아가며, 주제는 쾌활하게 변화한다.

6. **제5변주** Allegro moderato

제4변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트릴이 제5변주로 이어진다. 첼로 솔로는 E음까지 저음영역으로 내려가고, 오케스트라는 로코코 스타일이다. 이어지는 카덴차는 끝이 시작처럼 트릴로 돌아가고, 전 오케스트라가 멜로디를 한 번 더 반복한다. 이어 단조의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기교적인 두 번째 카덴차로 이어진다.

7. **제6변주** Andante

주제는 D단조로 전조되어 러시아적인 비장한 분위기로 바뀌어 연주되고, 카덴차로 넘어간다.

8. **제7변주와 코다** Allegro vivo

잠시의 휴식 뒤 솔리스트는 32분 음표의 연속으로 이 곡에서 가장 기교적인 변주로 돌입한다. 오케스트라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 베토벤

# Symphony No.9 D Minor Op.125 “Choral” 4<sup>th</sup> Mov.

교향곡 제9번 “합창” D단조 Op.125 제4악장

교향곡 제9번은 베토벤(1770-1827)이 20대이던 1790년에 시작해 말년을 바라보던 1824년에 완성했다. 30여 년에 걸쳐 작곡한 대작이다. 음악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최고 경지에 오른 베토벤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특히 제4악장에서 네 명의 독창자와 대규모 합창단이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노래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교향곡 제9번이 세계인의 클래식으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주로 4악장의 합창 덕분이다. 이 작품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제4악장

Presto, Allegro assai, D단조 4/4박자, 변주곡 형식

네 명의 독창자와 합창단이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노래한다. 관현악에 의한 기묘한 소음으로 시작되는데, 저음 현악기의 레치타티브에 의해 여러 차례 중단되며 1악장, 2악장, 3악장의 선율이 회상된다. 이어 목관에서 합창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드디어 저음 현악기에서 환희의 선율이 시작된다. 다시 소음이 나타나지만, “오 벗들이여 이런 음들이 아니라, 좀 더 평안하고 기쁨에 넘친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겠는가!”라는 바리톤 레치타티브에 의해 분위기는 압도되고 이어 바리톤 독창이 ‘환희의 송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기쁨의 노래는 혼성 3부 합창·혼성 4중창·혼성 4부 합창 등으로 이어진다. 변주를 거듭하면서 솔리스트와 합창이 갖가지 조합으로 노래하며 환희의 감정이 고조된다. 드디어 피날레. 빠름과 느낌의 급격한 속도 변화와 박자 및

조성이 교차되면서 절정으로 치달는다. 이윽고 폭발할 듯한 환희가 매우 빠른 속도(prestissimo)로 마무리된다.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섬광, 낙원의 처녀여, 우리들은 황홀감에 취해서 천국의 당신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대의 온유한 날개가 머무는 곳에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도다 … 백만 인이여 서로 껴안아라! 전 세계의 입맞춤을 받아라! 형제여! 별들의 저편 위에 사랑하는 하느님이 계시도다. 백만 인이여 무릎을 꿇었는가? 세상 사람들이여, 창조주가 계심을 느끼는가? 별들의 저편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찾아라! 별들의 저편 위에 하느님은 반드시 계시느니라!”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

## Magnolia 2014

---

Magnolia 2014는 경희의 전 구성원이 변화와 창조의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한마당입니다. 2009년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안으로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밖으로 경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축제입니다.

---